

그린벨트 풀린 땅 '임대주택 의무공급' 사라진다

효천1지구·용연저수지 주변 109만㎡ 주택개발 탄력

오늘부터 시행 ... 지구단위 계획 변경 절차도 간소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땅에 주택을 지을 때 임대주택을 35% 이상(가구 수 기준) 짓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사실상 사라진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광주권의 주택개발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도교통부는 "그린벨트에서 풀렸는데도 여전히 개발사업이나 정비가 더딘 지역에서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과 '도시·군관리계획수립 지침'을 이같이 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그린벨트에서 풀린 땅에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옛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으로 주택을 건설할 경우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6개월 넘도록 팔리지 않으면 분양주택 건설용지로 전환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35% 이상 공급해야 하지만 임대주택 용지가 분양되지 않으면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용지가 하

나도 매각되지 않으면 임대주택을 전혀 공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임대주택 의무 조항이 사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의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시장·군수가 해제 당시의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면 대부분의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나 도(道)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의 재심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재심의 없이 국토부 또는 도시사과의 협의만으로 개발계획을 바꿀 수 있다.

이 경우 절차가 4개월 이상 단축된다. 도로로 단절된 1만㎡ 미만의 소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은 폭 15m 이상 도로(4차로)로 분리돼 있어야 해제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8m 이상 도로(2차로)로 단절돼 있어도 시·도지사가 이용 현황이나 환경 등을 고려해 해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처럼 규제가 해소되면 그린벨트에서 풀린 뒤에도 착공되지 못한 사업 등 약 12.4㎢(여의도 면적의 4.3배)의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추산했다.

광주의 그린벨트 해제 면적도 4.5㎢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만큼 향후 주택개발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광주에서는 남구 효천 1지구(94만㎡)와 동구 용연정수장 입구 선교벤처타운 부지(15만㎡) 등 109만㎡가 그린벨트 해제 이후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내 공사착공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한승원 칼럼

들에는 모내기 끝나가는데, 산에서 배꼽새가 숨 가쁘게 울고 하얗게 핀 밤꽃은 음험한 향기를 뿜는다.

그 향기는 젊은 여인들을 설레게 하고 과부들을 슬프게 한다는 말이 있다. 나는 지금 장흥군수 당선자와 광주시장 당선자에게 말하려고 한다. 장흥군수 당선자에게 말하려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장흥이므로 장흥군수 선거 분위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고, 광주시장 당선자에게 말하려는 것은 이번 광주시장 선거가 양당체제로 치러진 선거 관세에서 전국적인 태풍의 눈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장흥의 경우, 3선에 도전한 현직 군수가 '세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을 받을 기회가 보이자, 이번 군수 당선자는 무소속으로 빠져 나가 출마를 했는데, 현직 군수가 고배를 마셨다.

광주의 경우는 그와 반대이다. '세정치민주연합'이 이번 시장 당선자에게 전략공천을 하자, 현직 시장과 국회의 원직을 내딛진 후보가 무소속으로 빠

여놓은 일을 잘 추스르기 바란다.

다른 군에서 흘러 떠다니는 소문, '계장들이 과장으로 승진을 하려면 군수에게 5천만 원씩을 싸다 주어야 한다'더라, 과장 승진을 하게 되면 권력 생기고, 봉급 올라가고, 나중에 연금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돈을 싸다주려는 계장들이 줄을 서 있다'더라, 토목공사 따위의 사업 입찰에서 낙찰을 도와준 대가로 군의원을 하고 짜고 리베이트를 몽땅이로 챙긴다'더라'하는 말들이 장흥군에서는 떠돌지 않게 하기 바란다.

다음은 광주시장 당선자에게 말한다. 다음 사람의 의식 있는 안과 의사로서 올바른 시민사회를 위하여 많은 활동, 시민운동의 대부 노릇을 했을 뿐, 행정 경험이 없는 당신을 광주가 선택해준 까닭을 당신은 알고 있는가.

인간의 육체적인 눈을 밝게 열어주는 안과 의료사업을 하던 당신은, 이제 광주시민들의 깨어 있는 건강한 시선과 지향점을 위해서, 광주라는 큰 배를 이끌어가는 선장으로서의 사업을 하게

밤꽃은 음험한 향기를 뿜는다

저 나가 단일화의 과정을 거쳤고, 국회의원이었다면 후보는 단식투쟁까지 하면서 현직 시장을 응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시장이 참담한 고배를 마셨다.

두 당선자에게 축하하고, 먼저 장흥의 군수 당선자에게 말한다. 당신은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고향인 장흥에 거주하면서 정치에 들어섰고, 도의 원을 거듭 두 차례 지낸 바 있다. 4년 전에 군수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경력이 있을 뿐 행정경력은 없다. 그런데 이번 장흥이 당신을 선택한 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장흥의 대통령이라 생각하지 말고 머슴이라 생각하기 바란다. 이참의 4년을 잘 남긴 다음 차기에 또 군수로 선택 받기 위하여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만 한 표로 한 표씩으로만 계산하고, 표가 나올 곳들만 쫓아다니는 정치적인 행정을 하지 말고, 당신의 인기불이와 지적을 위하여 전지행정을 하지 말고, 먼저 전(前)군수가 벌

되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내 사전에는 '이번 광주시장 당선자가 내건 그 어떠한 선거 공약들보다 강하게 작용한 것은 정권 교체에 위한 동력의 큰 물너움을 광주에서 일으켜 달라는 것'이라고 쓰여 있다.

그러하여 파란만장한 격동의 역사 굽이굽이마다 기우뚱거림을 바로잡아 주는 균형감각 뚜렷한 깨어 있는 광주에 이번에도 위대한 선택을 한 것이다. 당신은 이제 무거운 정치적인 짐과 행정가로서의 짐을 짊어졌다.

시민운동의 참신한 대부노릇을 했듯 광주의 가난한 사람들, 일차리 없어 고 통스러워하는 청년들, 싸디한 임금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후진 동네에서 쓸쓸하게 늙어가는 사람들의 운운한 대부노릇을 하고, 광주가 문화의 중심도시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

한 지자체의 장이 4년 뒤의 차기 선거에서 또 당선되기 위하여 표 있는 곳을 쫓아다니거나 자기의 인기불이를 위하여 음모를 꾸미곤 하는 것은 세월호 선장이 자기 혼자의 목숨 챙기느라고 탑승객들을 버리고 달아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소설가〉

중, 일본군 위안부 자료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중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를 중국 단독으로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신청한 사실을 10일 공식 확인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 측이 위안부 관련 자료를 등재 신청했는지 확인해 달라"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대해 답변서를 보내 이같이 확인했다.

중국 외교부는 답변서에서 "중국이 이번에 신청한 (위안부) 관련 역사적 자료는 진실되고 진귀하고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며 신청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중국이 이번에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한 목적은 역사를 깊이 새기고 평화를 소중히 여기고 인류의 존엄을 수호함으로써 이런 반인도적·인권침해적·반인류적인 행위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전태일 열사 묘소 찾은 새정치연합

김한길·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등 당지도부가 10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 모란공원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전태일 열사 묘소에 헌화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박상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의 임명에 항의하는 뜻에서 이날 정부가 주최하는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는 참석하지 않고 모란공원에서 자체 기념식을 가졌다.

/*연합뉴스

광주 부이사관 3명 명퇴... 민선 6기 출범 출사퇴 예고

민선 6기 출범에 맞춰 광주시 부이사관 3명이 이달 중 명예퇴직을 하기로 하는 등 시 분청은 물론 출사·출연기관장의 '출퇴임'이 예고되고 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안기서 체육U대회지원국장, 최연주 복지건강국장, 김성호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오는 16일자로 명예 퇴직을 할 예정이다. 앞서 흥진태 투자고용국장도 명예퇴직을 해 3급 승진요인이 최소 4자리가 발생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남은 임기 동안 인사

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강 시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윤 당선인에게 인사와 예산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며 "국장(부이사관) 인사와 관련해 공직 내 평판과 언론인들의 이야기도 경청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산하 (재)광주발전연구원 박승주 원장도 지난 9일자로 임기가 완료돼 퇴임하는 등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출사·출연기관 임원들의 연세 퇴임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표기자 lucky@

野, 박대통령 해외순방에 첫 동행... 전순옥 의원 파견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 순방 때부터 야당 의원도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해외 순방에 지금까지 야당이 참여하지 않았으나 이번 순방부터는 대통령이 소통정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야당에서도 대표 의원을 파견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순방에 처음 동행하는 야당 대표의원으로는 고(故) 전

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순옥 의원이 임명됐다. 전 의원은 박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일정을 함께 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오는 16~21일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순방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해외 순방 때마다 직·간접적으로 야당 의원의 동행을 요청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박진표기자 jkpark@kwangju.co.kr



산재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주 스스로 안전보건의식을 높이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현장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제거하는 재해예방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산재예방요율제도를 시행합니다.

-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하여 안전보건공단의 인정을 받은 경우 산재보험료를 인하해 주는 제도
- 재해예방활동**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주 교육 인정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실행하는 활동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적으로 산재예방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
- 적용대상** 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
- 적용방법**

구분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주 교육 인정
할인율	산재보험료를 20% 인하	산재보험료를 10% 인하
유효기간	3년간	1년간
방법	재해예방활동 인정일이 속한 다음연도부터 인정기간 만큼 일할개산하여 산재보험료를 인하 (중복시 인할율이 높은 것 적용)	
- 신청방법**
"재해예방활동신청서" (상시근로자수 증명서류 첨부)를 사업장이 속한 지역의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도원에 제출
※ 상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또는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지도원에 문의
- 업무처리절차**

산재예방요율제 참여신청 (사업주)	재해예방활동 이행 (사업주)	이행여부 확인 및 인정 (안전보건공단)	산재보험료를 할인 적용 (근로복지공단)
--------------------	-----------------	-----------------------	-----------------------

※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및 산재보험료율의 적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